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Thursday 17 May 2001 (afternoon)

Jeudi 17 mai 2001 (après-midi)

Jueves 17 de mayo de 2001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e pas ouvrir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
- Rédiger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a)와 (b) 중 하나를 택해 논평하라.

- 1(a)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또 하나의 물음은 '시는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실제적인 효용을 존중하며 성질이 급한 어떤 사람들은 시라는 것이 별로 요긴한 쓸모가 없는 사치스런 물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한다. 그들에 의하면 시는 쌀이나 연탄을 만들어 내지 못하며, 그렇다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르치거나 영화, 통속 소설 같은 짜릿한 자극을 전달해 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보면 시라는 것은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고 고상한 체하는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에 가끔 들추어 보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이상스러운 글인 것 같기도 하다.
- 이러한 과격한 공격에 대해서 시를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는 그들 나름으로 또 하나의 극단적 주장을 편다. 즉, 시가 아무런 실재적 쓸모를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며, 시는 시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다른 어떤 가치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시는 오직 아름다움만을 추구할 뿐 현실의 문제나 진실, 선 농의 가치는 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른바 '예술을 위한 예술'의 예술 지상주의론까지 성립하게 된다.
- 그러나, 이 두 극단론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시는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인 효용이 없는 듯이 보인다 해서 전혀 아무런 쓸모를 가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 시가 그 나름의 특별한 존재 가치를 띠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꼭 떨어진 독립적 가치를 지닌다고 우기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 인류가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결같이 시를 지녀 온 것은 그것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쓸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먹고 사는 데 직접 도움되는 것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무턱대고 시를 배척하는 일이 옳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의 생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가치를 넘어서 따로 시의 쓸모가 있다는 주장도 지나친 억설이다. 시가 아무리 값이 있다 해도 우리 자신, 가족, 이웃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다운 삶 전체와 무관한 가치를 가질 수야 있겠는가? 시는 그 쓸모가 어떤 종류이든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의 전체를 지키며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1991) 김홍규

- 이 작품을 내용상으로 볼 때 무엇에 대해 쓴 것인가?
- 이 글에서 공감이가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이 글에 나타난 구성을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자.

1(b)

봄은

신 동 엽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5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10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우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15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불이를  
        눈 녹이듯 흐물흐물  
20     녹여버리겠지.

<1968>

- 작자가 자신의 시 속에서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 시인이 무슨 주제를 표현하고자 한 작품인가?
- 이 시에서 보인 서술상 기법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